

2011년 복 경기 전망

2010년 하반기 종계 입식물량을 고려해보면, 2011년은 전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공급과잉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주요 계열사에서 공급과잉을 우려하여 생산성이 저하된 종계 및 노계를 도태하면서 종계 사육 마리수를 감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기온마저 낮게 유지되어 전체적인 종계 및 육계 생산성이 하락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병아리 입식기피현상까지 더해지면서 2011년 상반기 닭고기 공급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소비부문에선 예측을 벗어난 상황이 발생했다. 구제역으로 인해 발생한 돼지고기 대체수요가 HPAI로 위축된 닭고기 수요를 상회하면서 육계 산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육계 산지가격의 강세는 4월 중순 이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일본을 강타한 지진의 여파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수산물 소비위축을 불러왔고, 이는 닭고기 수요 증가로 이어져 육계 산지 및 소비자 가격이 2주가량 더 강세를 보였다.

높게 유지된 가격의 영향으로 3월 이후 병아리 입식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5월 현재 육계 산지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기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복 시기 육계산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남 경 수 초청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육계 사육동향 및 전망

위에서 언급했듯이 육계 산지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시기에 종계 도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아리를 입식하고자 하는 농가는 증가했다. 3월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9.9%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공급과잉이 가시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각 통계 지표를 이용하여 복 시기에 출하될 육계 사육 마리수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

대한양계협회의 육계 수급예측 기초자료를 보면, 4월 육용종계 사육 마리수는 685만 마리로 전년 동월대비 5.2% 증가했고, 종란 생산계군은 471만 마리로 전년보다 11.6% 증가했다.

종계 사육 마리수가 증가했고, 질병 및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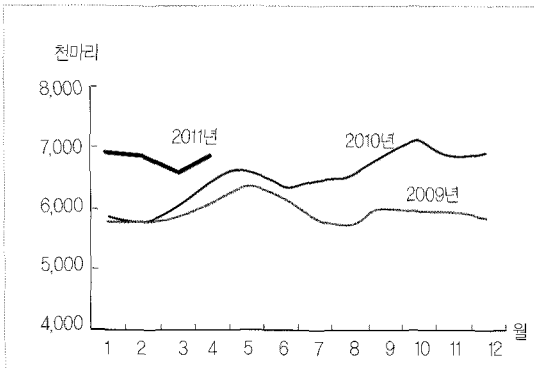
씨의 영향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나타나지 않아 종계 생산성 또한 전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종란 생산계군에는 도태가 지연된 노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예상되어 5월 병아리 생산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6,600만 마리로 전망되고, 6월 병아리 생산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7,068만 마리로 전망된다.

농업관측센터 육계 표본농가 조사결과 5월 육계 생산성은 향상되었고, 병아리 생산 또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6월 육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월대비 8.5% 증가한 11,037만 마리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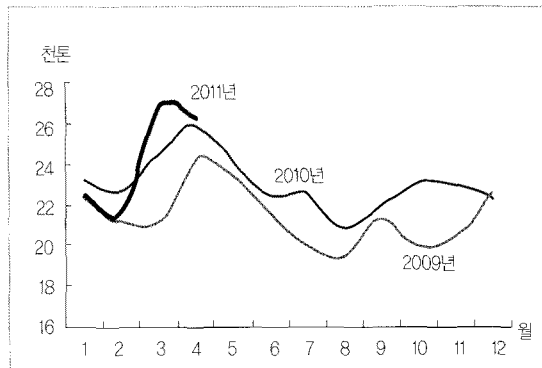
동일선상에서 7월 육계 사육 마리수를 추정한 결과, 전년보다 6.3% 증가한 11,266만 마리로 전망된다.

〈그림 1〉 육용종계 사육 마리수 동향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2〉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 동향



※자료 : 대한양계협회

2. 닭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4월 중순 이후 공급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 현재 뿐만 아니라 7월까지 공급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4월 종계 입식 마리수는 전년 동월보다 12.8% 증가한 73만 마리로 나타나, 11월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13.3% 높은 수준이며, 7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14.8%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과 종계 및 육계 사육 마리수 증가정도,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

여 8월까지 도계 마리수를 추정한 결과 6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7,987만 마리, 7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9,156만 마리, 8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6,701만 마리로 전망된다.

6~8월 닭고기 국내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닭고기 수입량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닭고기 5만톤 무관세 수입이 시행되면서 6월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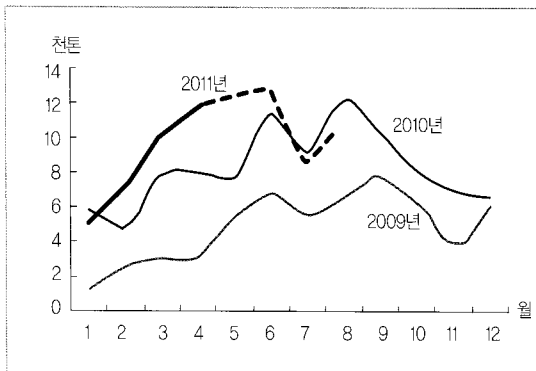
하지만 국내 육계 산지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6월까지 5만톤이 모두 수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7월과 8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11년(A)	136.6	131.7	120.7	115.8	121.4	128.9
2010년(B)	120.5	114.8	109.8	110.0	115.8	122.8
증감률(A/B, %)	13.3	14.8	10.0	5.3	4.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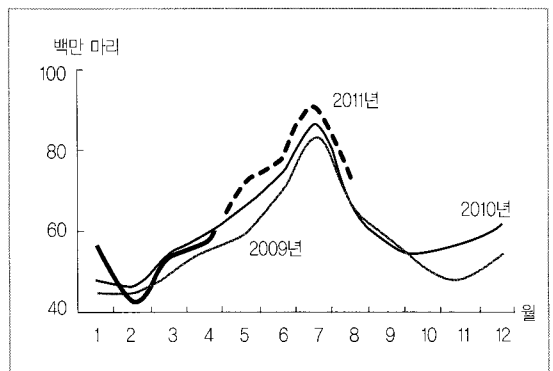
※주 : 육용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했으며, 2009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그림 3〉 닭고기 수입 추이 및 전망(검역 기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그림 4〉 도계 마리수 전망



※자료 : 대한양계협회

5월 15일 기준 닭고기 냉동 비축물량을 살펴보면, 산지가격 약세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전월보다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8월 소비자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 대체수요로 닭고기 수요가 2.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산물 대체수요로 닭고기 수요가 3.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6~8월 닭고기 소비는 전년보다 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육계 가격

가. 육계 가격동향

지속적인 종계 입식물량의 증가로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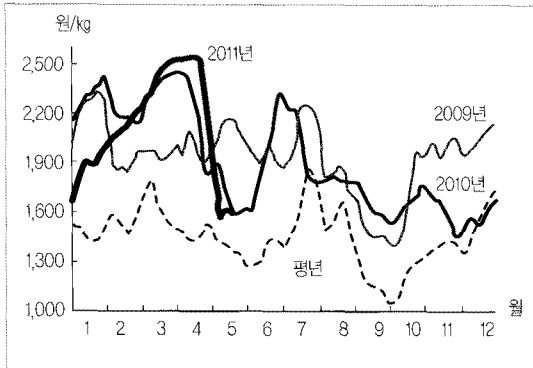
상반기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노계 도태 마리수의 증가와 HPAI로 인한 병아리 입식제한, 한파의 영향, 구제역 영향으로 돼지고기 대체수요 증가, 일본 지진여파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대체 수요발생 등이 겹치면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육계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3월부터 병아리 입식 마리수가 크게 증가하여 4월 말부터 가격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여 5월 들어 1,600원/kg(농협발표 기준)선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5월(1~23일)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612원/kg으로 전년보다 7.2%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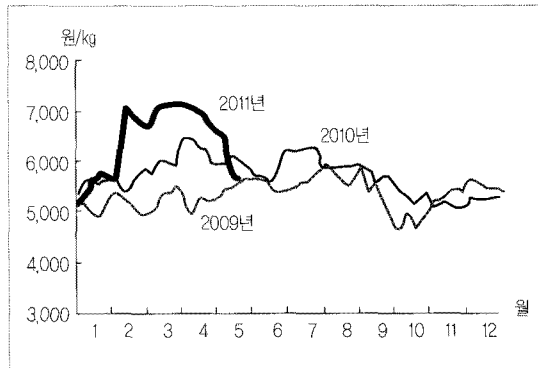
소비자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2월 중순 급등하여 공급이 원활해지기 시작한 4월 말부터 급격히 하락해 5월 13일 이후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림 5〉 육계 산지가격 추이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그림 6〉 육계 소비자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5일 이동평균가격)

5월(1~23일) 평균 육계 소비자가격은 6,082원/kg으로 전년보다 1.2%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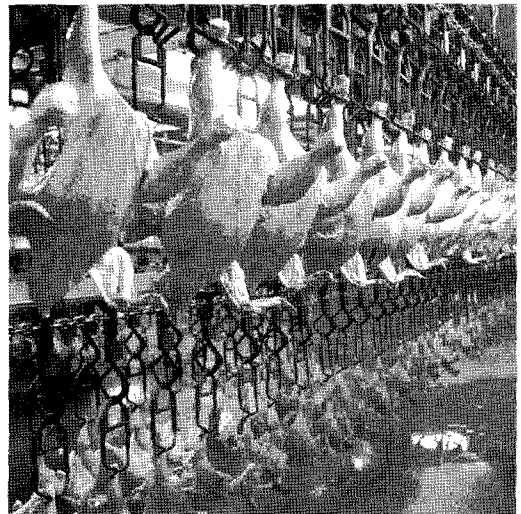
나. 육계 가격 전망

5월 현재 낮게 유지되고 있는 육계 산지가격은 6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7월 소폭 상승한 후 8월 다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가격 인상, 돼지고기 및 수산물 대체 수요 증가 등이 육계 산지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계 마리수와 닭고기 수입량 증가로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6월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육계 생체 kg당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6.9~17.2% 하락한 1,600원~1,800원으로 5월 대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7~8월 닭고기 수요는 예년보다 5% 가량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량은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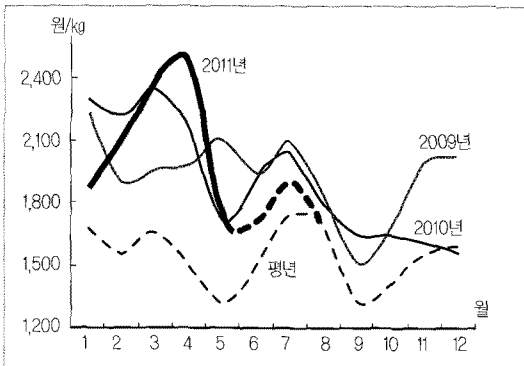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도계 마리수 증가로 인한 닭고기 공급량 증가의 영향이 커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2~12% 하락한 1,800원~2,000원/kg, 8월 육계 산지가격은 1~10% 하락한 1,600원~1,800원/kg으로 전망된다.

육계 산지가격 약세가 전망됨에 따라 6~8월 소비자 가격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복 수요로 7월 육계 산지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병아리 생산 잠재력 및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복 시기 이후 장기적 불황을 겪을 것으로 보여 육계산업은 힘든 2011년 하반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육계 산지가격 전망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